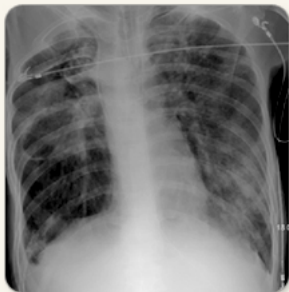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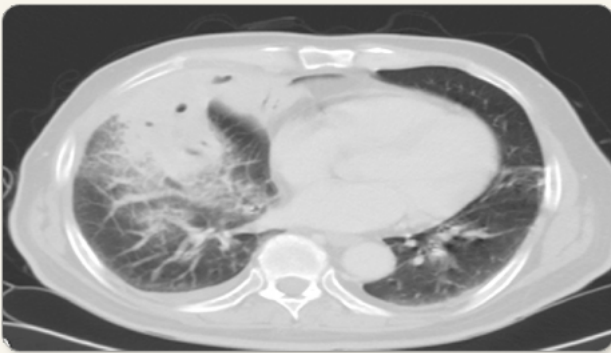
〈그림. 폐렴의 방사선사진 소견〉



전형적인 폐렴의 흉부사진
(왼쪽 폐에 폐침윤이 보임)



폐렴과 유사해 보이는 폐결핵 사진



폐렴의 감별을 위해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한 사진
(전형적인 폐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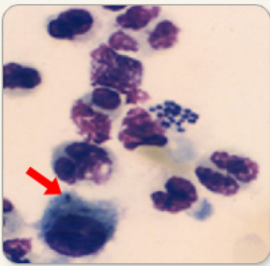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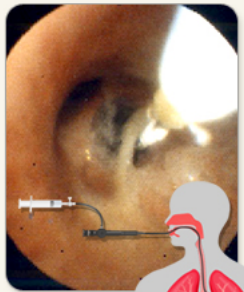
객담검사는 폐렴의 원인균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객담을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세균용 배지에서 배양하면 폐렴을 일으킨 원인균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인균을 알 수 없으면 기관지 내시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혈액검사는 염증의 정도나 동반된 다른 이상들을 살피기 위해 시행합니다.

〈그림. 기관지내시경검사〉

〈기관지내시경〉



〈기관지폐세척술〉



폐렴을 일으킨 균들이 백혈구내에 탐식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됨(빨간색 화살표)

치료-약물 치료

약물 치료 중에는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진단 당시 원인균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끝내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개 폐렴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진 균들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만, 독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에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 약제가 없습니다.

항생제 외에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열제, 진통제, 진해 거담제 등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약을 사용하여 기침을 과도하게 억제시키는 것은 가래 배출을 막아 치료에 방해가 되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치료-비약물 치료

다른 감염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수분공급이 중요합니다. 가래를 잘 배출시키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 진찰

폐렴은 급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 진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병증

폐렴을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하면 폐농양(고름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폐렴보다 훨씬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당뇨가 있으면 폐농양의 위험이 높습니다.

폐렴이 늑막을 침범하면, 합병증으로 늑막염이 생깁니다. 늑막염은 대부분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어려우며, 늑막에 고인 물을 빼 주어야(배액) 합니다. 배액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늑막 안에 관을 삽입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적절히 배액되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폐렴이 아주 심해지면 중증호흡곤란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며,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위험요인 및 예방

흡연은 폐렴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경계통의 문제가 있는 경우,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 알콜중독, 폐질환, 면역억제치료 등도 폐렴의 위험을 높입니다.

폐렴의 위험을 낮추는 예방주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독감예방접종: 독감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인자가 있거나 고령인 분들은 매년 가을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2. 폐렴구균백신: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여러 균들 중 하나이므로 이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아예 폐렴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므로 폐렴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흡연자는 금연하고, 적절한 영양과 운동으로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도 폐렴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폐렴이 무엇인가요?

A.

폐렴은 숨을 쉬는 허파에 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기침, 가래, 발열, 호흡곤란 등이 특징입니다.

Q. 폐렴은 어린이들이 주로 잘 걸리는 병 아닌가요?

A.

물론 어린이도 잘 걸리지만 어른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더 잘 걸리고, 또 위험도도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가 절실합니다.

Q. 폐렴은 옮기는 병인가요?

A.

물론 옮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환경,면역nbsp;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Q.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되나요?

A.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폐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폐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폐렴은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직접 폐에 들어가 병이 생깁니다. 일부 폐렴은 시초에 감기증상과 유사하므로 감기가 폐렴이 된 것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Q. 폐렴은 예방할 수 있나요?

A.

폐렴의 예방은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 접종을 빠짐없이 하고, 손씻기를 비롯한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예방율이 높아집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이용안내](#)

[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문의사항: 02-2030-6602 (평일 9:00-17:00, 12:00-13:00 제외) / 관리자 이메일 : nhis@korea.kr
COPYRIGHT © 2024 질병관리청. ALL RIGHT RESERVED

[해외기관](#)

[유관기관](#)

[정부기관](#)

※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